



(주)테크데이타 by 이무제, photo by 이선우, 자료제공 : (주)테크데이타

새로 추가된 JBL VTX의 라인업

JBL VTX A-series A12 Demo Day

2017년 KOBA에서 한국에 처음 선보인 VTX A12의 낮은 프로파일에 길고 심플한 외형은 기존의 VerTec 시리즈나 VTX V 시리즈의 화려한 디자인에 익숙했던 음향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했다. 하지만 당시 (주)테크데이타에서 선보인 터무니없을 만큼 편리하고 쉬운 리깅 및 플라잉 시연은 그 생소함을 기대감으로 바꾸기 충분했다.

JBL Profesional 제품을 비롯한 Harman의 프로페셔널 제품군의 유통 및 기술지원을 맡은 (주)테크데이타는 JBL VTX A12의 본격적인 출시를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1월 24일(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SAC Art Hall에서 'JBL VTX A-series A12 Demo Day' 행사를 주최했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렸으며, 교육은 3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VTX A12에 대한 제품 및 기술 프리젠테이션, 이동 및 리깅 시연, 사운드 데모로 이루어졌는데 참석자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어 JBL이 새로 출시한 VTX A12에 대한 음향인들의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위 · 메인 스피커 어레이는 L/R 배치로 한 쪽당 8통씩 총 16통이, 서브우퍼는 지향성 셋업 후 센터 어레이를 통해 균일한 커버리지를 달성했다. 메인스피커는 VTX A12, 서브우퍼는 VTX G280이다.

Rodney Houston(Senior Director of Sales)가 VTX A12의 프리젠테이션을 맡았다.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설계된 '새로운 VTX'

(주)테크데이터 직원들의 따뜻한 환대 후 취재진은 본격적인 제품 시연에 앞서 VTX A12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은 Rodney Houston(Senior Director of Sales)이 진행했으며 통역은 기술연구소의 최승우 대리가 맡았다. Rodney Houston은 VTX A12가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VTX'라며 심플한 외형에 담긴 신기술들을 소개했다.

VTX A12 내부의 모든 부품은 모든 대역에서 균등한 성능, 높은 출력, 균일한 커버리지를 위해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 LF, MF, HF는 무게 대비 가장 높은 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저음의 제어가 매우 뛰어나 250Hz 대역에서도 90°의 지향각을 제어할 수 있는데 이는 업계의 어느 스피커도 달성하지 못한 기술이다.

JBL은 컴프레션 드라이버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원천 기술을 보유해 이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특히 phase-plug와 waveguide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파트인데 VTX A12에는 이 두 파트가 하나로 결합된 HF유닛이 장착되어 감도를 높이고 왜곡을 줄이면서도 무게를 낮추는 성과를 달성했다.

MF유닛의 경우 JBL이 특허를 낸 Radiation Boundary Integrator(RBI) 기술을 통해 4개의 5.5인치 드라이버와 HF의 waveguide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결합해 크로스오버 대역에서도 매끈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LF유닛은 12인치 급으로 듀얼 보이스코일, 듀얼 마그넷 디자인을 통해 고출력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반응으로 출력과 해상력을 높였다고 한다.

무엇보다 Crown I-Tech HD 시리즈 앰프를 사용하면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배선이나 DSP등을 추가할 필요 없으며 JBL에서 제공하는 'HiQnet Performance Manager™'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체 시스템을 한 컴퓨터에서 통합 제어할 수 있는 편리함이 강점이다.



2017년 KOBA에서 선보였던 획기적인 리깅 시연이 재연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Roger Lim(Application Engineer)이 리깅 시연을 맡았다.



시연을 위해 Soundcraft V17000 믹싱 콘솔이 사용되었다.



시연 진행은 Brian Pickowitz (Director of Global Business Development)가 맡았다.

쉬운 이동 및 리깅으로 렌탈 컴퍼니의 관심 집중

그 성능이 제대로 알려지지조차 않았던 당시, 2017년 KOBA에서 시연된 획기적인 리깅 시스템만으로도 이 스피커는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조립, 해체, 이동이 잦은 렌탈 컴퍼니에게 VTX A12만의 독특한 리깅 시스템과 업계 최고의 무게 대 출력 비율은 대단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리깅 시연은 Roger Lim(Application Engineer)이 진행했으며 통역 및 시연 지원은 기술연구소의 박종호 과장이 맡았다. Roger Lim은 'VTX A12는 리깅 시스템에 있어서 큰 진일보를 이뤘다'면서 '내장된 록킹 메커니즘을 통해 셀렉터 핀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0.25~10°까지 리깅 각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연에 사용된 것은 VTX A12 AF Array Frame과 VTX A12 VT Vertical Transporter로 우선 Array Frame은 분리 가능한 Extension Bar가 달려 있어서 하나의 플라이 포인트만 필요할 때나 두 개의 플라이 포인트로 좀 더 극단적인 각도를 설정해야 할 때 모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Vertical Transporter는 VTX A12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트레이로 트럭 짐칸을 최소로 차지하는 컴팩트한 크기에 쉬운 리깅을 도와주는 기능까지 장착되어 렌탈 컴퍼니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파워앰프 및 DSP는 메인스피커의 경우 Crown I-Tech 4x35000i, 서브우퍼는 I-Tech 12000i 사용되었다.



HiQNet Performance Manager™ 소프트웨어로 콘트롤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압도적인 성능과 부드럽고 투명한 음색이 공존하다

마지막 코스는 가장 큰 관심을 모은 VTX A12의 사운드 데모였다. 그리 큰 공간은 아니었지만 VTX A12가 L/R배치로 한 쪽당 8통씩 총 16통이, VTX G28 서브우퍼가 지향성 셋업으로 9통이나 설치된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단 한통기준으로 VTX A12의 경우 46Hz~19kHz의 대역을 146dB/SPL로, VTX G28은 22~160Hz의 대역을 144dB/SPL로 출력하는 괴물들이기에 출력은 그야말로 남아도는 상황.

사운드 데모 시연은 Brian Pickowitz(Director of Global Business Development)가 진행했으며 기술지원은 기술연구소의 서승덕 팀장이, 통역은 기획마케팅팀의 박은희 팀장이 맡았다. Brian Pickowitz는 우선 전체 시스템의 구성 및 시뮬레이션 자료와 HiQnet Performance Manager™ 소프트웨어에 대해 설명했는데, HiQnet Performance Manager™의 깔끔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가 특히 호응을 얻었다.



Brian Pickowitz는 ‘처음 두 곡은 서브우퍼 없이 메인 어레이만으로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서브우퍼가 추가될 것’이라며 스피커 본연의 성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VTX A12는 특유의 HF 및 MF의 설계로 매우 선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서 ‘스피커 가까이서 멀리까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전체 커버리지 내에서 음량과 주파수의 균일함을 체크해보라’고 권했다.

이후 바로 사운드데모가 이어졌는데 80% 이상의 곡이 부드럽게 믹싱된 곡으로 선정되어 섬세한 VTX A12만의 사운드특성을 가감없이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Brian Pickowitz가 자신 있게 권했던 것처럼 어레이 가까이부터 먼 곳까지 균일한 음량과 음색 특성은 지금까지 라인어레이 스피커의 한계를 깨는 것으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만족을 표했다. 또한 음량의 경우 SAC Art Hall을 넉넉하게 울리고 남을 정도로 풍부했으나 취재진이 HiQnet Performance Manager™의 모니터를 확인해 본 결과 레벨미터의 절반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로 그야말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